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5월 22일 (제1150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천국의 소망

기도원 집회기간 동안 나를 감동시킨 사람이 있다. 고인이 된 오치환 장로의 아내요, 명철이 엄마 성경자 집사다.

명철 엄마는 집회 기간 내내 목사관 숙소에서 예전대로 묵묵히 일했다. 남편을 급작스럽게 잃은 지 채 열흘도 안 된 상태인데 명철 엄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 그대로 열심히 일했다.

내가 명철 엄마에게 좀 쉬라 했더니, 명철 엄마는 “목사님도 설교 계속하시잖아요. 저도 제 일 계속해야죠.”라고 말했다. 나는 명철 엄마의 손을 꼭 쥐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 오치환 장로가 정말 아내를 잘 얻었구나.’ 생각했다.

이 상황이라면 대개는 몸져누워서 한동안 앓는다. 그런다고 해서 누구도 뒷말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명철 엄마는 슬픔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일을 해냈다.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명철 엄마야말로 참 신앙인이요,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다. 가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가는 곳은 딱 한 곳이어야 한다. 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놓으신 천국이다.

우리는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소망이 있기에 자원하여 좁은 길을 가고, 스스로 절제하며, 스스로 세상의 풍류를 좇지 않는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또 있을까. 그 소망이 없다면 명철 엄마는 세상을 다 잃은 듯 울고불고해야 한다. 그러나 명철 엄마는 천국의 소망을 알기에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명철 엄마처럼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참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다. 꼭 그곳에 가야 한다. 그러니 그곳에 이를 때까지 흔들림 없이 묵묵히, 죽도록 충성하자. 명철 엄마처럼! 상과 면류관이 우릴 기다리고 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라

모두가 갈망한 시간이었다.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 기도원집회 이야기다.

우리 예루살렘기도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천국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며,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고,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이곳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새로운 삶을 얻었고, 인생의 경로가 바뀌는가 하면,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되고, 때

와 성도가 찾아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목사님은 하루 더 연장된 나흘의 집회를 진행하시며 정말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배수진을 치는 장수의 자세로 집회에 온 힘을 기울이셨다. 특히 둘째 날 집회에서 통곡의 기도를 촉구하시다 마지막에 온몸을 떨고 단상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기도하시는 모습은 사랑하는 직원을 먼저 보낸 개인의 감정과 교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사이에서의 고뇌와 번민이 고스란히 전해져 모두를 숙연케 하였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

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아무리 천상천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 비자, 곧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하면 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이나?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확실한 증거



2022 춘계산상집회(5월 9일~12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너리즘에 빠져있던 주의 종들이 부흥의 동력을 회복하는 그야말로 영적 충전소, 영적 전지훈련센터이기 때문이다.

그런 영적 기회의 장을 코로나19로 인해 빼앗겼었기에 다시 찾은 이 영적 자유가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했다. 청년들은 수련회를 위해 아껴두었던 연차휴가를 이 춘계산상집회에 투자하며 기도원을 찾았다. 아직 쌀쌀한 밤 기온으로 텐트 숙소의 잠자리가 힘들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그 기도의 자리, 그 소중한 영적 충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 모두가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집회를 준비하다 소천하신 오치환 장로님, 그리고 이를 안타까워하며 그 어느 때보다 집회에 힘겨워하실 목사님을 응원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기도원을 향했을 것이다. 이번 춘계산상집회는 여느 봄 집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목회자

은 이겨야 하고 핍박과 순교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외치며 스스로 채찍질해오신 목사님이었기에 그 고통의 무게가 더욱 가슴을 저미게 하였다.

목사님은 셋째 날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점검해볼 것’을 강조하셨다.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당시 한 전도사가 여권을 분실하였지요. 그로 인해 미국 비자가 없어서 남미 집회는 항상 미국을 경유해서 가야 하는데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는지라 한동안 공항에 억류되었다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비자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법

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5:19)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사도 베드로가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나 또한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 부족’이라고 기도원에 크게 새겨놓고 유언처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비자, 곧 성령을 소멸하면 여러분의 사후를 보장할 수 없기에 내 가슴을 찢어가며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었습니까? 날마다 성경 읽기를 잃어버렸습니까? 찬송을 잃어버렸습니까? 스스로 무엇을 잃었는지 점검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니 뭐니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우크라이나를 돕읍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10736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0:32~33)



예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면 성공한다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을 적어 놓은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꼭 나옵니다. 이는 ‘말씀하시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요1:1~4).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행통하리라”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이렇게 준비하라고 지시하면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은 생각과 말로 채색되는 예술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당연히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안으로 들어가시다 배가 고파서 열매를 얻고자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셨으나 잎사귀밖에 없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막11:14)고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그대로 곧 말라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자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막4:39)고 하시니 바람이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또 “귀신아 가라” 하시니 귀신이 떠난 사건이 4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창1:27), 우리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의 말에는 더더욱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3). 산을 옮길 만한 큰 권세가 우리 말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찌어다”(수10:12)라고 했더니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베드로가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가 바로 걸었습니다(행3). 저도 올림픽 공원 벨로드롬에서 예배드릴 때 태양이

너무 뜨거워 저 멀리 있는 손바닥만 한 구름을 보고 “구름은 태양을 가려라!”고 명령했더니 정말 구름이 태양을 가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예수님은 ‘천국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 네 말로 인생을 묶을 수도, 풀 수도 있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요? 내 말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아시죠?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23:42)라고 말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다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눅23:39)고 말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롬10:10).

축복과 저주요? 당연히 말에 있지요. 가나안을 탐지하려 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민14:2~3)고 부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말대로 그들은 메뚜기 신세가 되어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민14:36~37).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뿌려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민14:38). 이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잠18:21).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을 다 듣고 계실 뿐 아니라 천사를 통해 매일 보고 받으십니다(마18:10). “누가 오늘 이렇게 말 하던데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해줘라.” 이런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는 말씀도 곧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옛 어른들도 말이 씨라고 하는데, 가시나무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안 보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가시나무가 자라 사방에서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무화과 열매로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 씨가 심기지 못하게 입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와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141:3). 내 생각 속의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갑

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생각이 결과다’(렘6:19)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병 속에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고, 오물이 가득하면 오물이 나오는 법 아니까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7~18)라고 당차게 말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굳은 신앙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이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제 목회 성공비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백문백답, 천문천답, “나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힘들 때도 함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고백했고, 앞이 캄캄할 때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가 난 자식에게 쫓기면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고 주님을 자랑했더니, 어두움의 시절이 가고 그는 말년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이렇게 시인하시고, 그대로 행해주시기 때문입니다(마10:32~33).

사과 씨 속의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나는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 말의 결과이고, 장래의 나는 지금 내 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아이고, 못 살겠다.’, ‘이놈의 팔자야.’,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뿌리지 마세요. 왜 가시나무 씨를 자주 뿌립니까?

이제 잘못된 말을 지우개로 지웁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와 허물을 지우는 최고의 지우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에 신중합시다(약1:19). 나에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남에게는 감사의 말, 칭찬의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러면 꼭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술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벧전3:10~11).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빅스텝과 여파

유사(有史) 이전부터 재화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인류는 화폐라는 수단을 고안하였고, 화폐에 대한 유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된 다양한 사인 간의 약속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조합한 것이 현대의 금융제도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동일한 재화에 대한 수요가 무한정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단계에 이르면 감소한다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더라도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나면 처음보다 나중에 원하는 수요의 정도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의 공급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은 물론 수반되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고, 국가는 시장 참여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용자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역할만 수행해야 하는 국가와 같은 제삼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장에 개입하여 공급량, 혹은 가격 등을 임의로 통제했을 때 자율성을 상실한 시장은 참여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을 20세기 말 계획경제 체제의 붕괴를 통하여 인류에게 입증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에서는 빅스텝(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0.5% 이상씩 인상하는 것) 조치를 시행하였고, 또한 양적 축소까지 단행한다고 발표하여 세계는 패닉상태에 돌입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자산까지 폭락하게 될 것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은 대대적으로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여 간신히 시장을 진정시켰고, 다시 공급되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일시에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였지만 본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유입되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집중화되어 거품을 생산하였고, 결국 거품을 제거하는 단계에서 부실화되는 부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약1:15)고 하신 것처럼,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면 원칙을 벗어나고, 결국 손실이 누적되고 자산이 부실화 되어 모든 것을 잃는다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지난 40년간 묵묵히 오신 길은 타협하지 않고 오신 좁고 험한 경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은 거쳐 가 본 사람만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임윤석

:: 세상을 보는 창 ::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본 사람들

19세기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은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점에서 아주 독보적이다. 그림에는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 나온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6시간 동안 주님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 하나 하나에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임했으며, 십자가 후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먼저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제국의 권세가 있었기에 오만방자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직후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또한 가장 독한 말로 예수님을 공격한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 꿇어 복음을 받아들인 예루살렘의 허다한 무리가 섞여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조롱하던 군중들은 어땠을까? 악한 이들에게 선동되어 예수님을 독하게 비방했던 그들은 십자가 사건 직후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이후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분도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으며, 교회가 탄생했다. 한편 진심으로 주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까지 울면서 주님을 따라왔고, 주위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따가운 눈초리도 상관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는다. 환난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른다. 십자가의 용서의 힘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멈추지 않는구나

옛 어른들
세상이길 장사 없다 했다
참으로 진리 중 진리다
세월을 요리할 자 그 누군가
내 나이 70을 훌쩍 넘겼구나
아~아 세월 참 빠르구나
이제!
모든 일에 심사숙고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자
혹시나 노욕에 주님 맘 아프게 할라
욕심내지 말자
남의 맘 아프게 말고
병들고 가난 속에 울며 길 찾는 외로운 자 벗어나
물줄기 사막에 꽃 피우고 산천초목 살리며
바다 찾아 웃으며 가듯이
내 고향 천국 향해
이웃과 손잡고 뱃 삼아 가자꾸나, 초석아~~
이것이 선한 목자 길 아니겠나
무엇을 더 바라리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로다

朋友

:: 낮은 울타리 ::

주님을 신뢰하라

요즘 즐겨보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아이들이 나와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난 경연 결과에 따라 다음 경연곡을 순서대로 고를 수 있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 경연에서 꼴찌를 한 팀은 원하는 곡에서 모두 밀려나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곡의 안무 선생님이 연습실에 등장했습니다. 그 안무 선생님은 연습실의 분위기를 바로 파악하고 그 팀원들을 모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곡을 맡은 안무가들보다도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꼴찌였던 이 팀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가장 높은 퀄리티로 중간평가에서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안무 선생님을 만나 상황이 반전된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고난의 시간 속 항상 반전을 숨겨 놓으신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잡고 있던 희망의 끈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쉽게 상실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분명 주님의 계획안에 있고 그 계획안에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기적과 반전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지금 내 눈 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벅차 주님을 바라보기 힘들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기 위해 막 발버둥 치면 오히려 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내 몸이 물에서 뜰 수 있는 것을 믿고 힘을 쭉 뻗 후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수면 위로 떠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반전과 기적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나를 구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합시다.

장수정

:: 동행하는 삶 ::

:: 신앙에세이::

아이를 믿어주는 마음

얼마 전 아이가 사소한 일로 거짓말을 했다. 너무 놀라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단단히 야단을 쳤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듯한 상황이 생겼고, 나는 아이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아이의 말이 맞았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를 하고, 이후 많은 생각을 하였다. 그러다 기도하며 다시금 깨달았다. 엄마는 아이를 믿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와 일상생활 중 많은 상황들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사실 별일 아닌 것들로 마찰이 생긴다.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의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공부도 안하고 교회도 주일에만 겨우 나가는 그런 학생이었다. 어린 시절의 성령 충만함은 사라지고 사춘기가 한창이었을 때였다. 시험 기간이 지나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학교에서 부모님 확인을 받아오라고 했다. 엄마에게 성적표를 내밀고 나는 바로 도망을 갔다. 혼날 것이 무서워서였다. 한참 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혼을 내지도 않으시고 차분히 말씀하셨다. 엄마가 기도를 하시는 중에 내가 책상에 앉아 머리에 띠를 두르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고 믿기지도 않았고 웃어넘겼다.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첫 시험을 보았는데 공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성취감이 생겼다. 동기부여가 되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고 교실에서도 맨 앞에 앉아 선생님 말씀을 들었다. 시험 기간이 되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에 가서 시험 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책상에 앉아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공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그 말씀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이었구나. 엄마의 기도로 이렇게 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래서 기도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들도

그런 내 모습을 예쁘게 보셨는지 책 사이에 문화상품권도 넣어주시고 문제집도 챙겨주시고 후에는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 처음으로 1등을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다. 정말 감사했다.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나에게도 왔기 때문이다. 졸업할 때는 우등상, 개근상, 공로상, 서울시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주는 표창장까지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엄마의 기도와 딸을 믿어주는 마음에서 얻게 된 결과이리라.

이제는 나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다. 우리 엄마처럼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이를 믿어주며 힘을 실어주는 엄마가 되어야겠다 깨달았다. 아이를 믿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나를 반성하고 회개하며 앞으로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믿어주는 엄마로 살아야지 다짐해본다.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Good News

길의 선택에 따라서 목적지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 가라’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매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영생에 관련된 사항은 ‘내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나?’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

닙니다. 오직 한길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잠깐 생각을 빼앗겨 등산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길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해는 저물어가고 가는 곳마다 절벽만 나타났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스마트폰의 GPS지도를 켜니 내가 있는 위치와 등산로 표기가 뜨기에 목표를 정하고 가다 보니 등산로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지도인 성경을 보고 다시 궤도수정을 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 명예, 쾌락 등,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 받는 길이고 영생복락의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4:12).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오미크론 후유증 종류와 대처방법

오미크론이 대유행 후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국가 방역체계도 심각도를 낮추어 가며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보다 오미크론에 걸렸을 때 대응이 수월해졌으나 오미크론이 회복 후에도 발생하는 여러 후유증에 대해서는 대처가 조금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미크론 후유증으로는 개인마다 원래 본인이 약했던 신체 부분이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폐가 약한 체질은 마른기침이 오래 가거나 흉통 및 만성적인 피로가 오거나, 심장이 약한 체질은 심박동수가 늘거나 우울증 및 수면 장애가 생기고, 위장이 약한 체질은 소화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거나 떨어집니다. 간이 약한 체질은 감정기복이 생기거

나 어지럼증이나 근육통이 생기고, 장이 약한 체질은 설사가 지속되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발병되는 만성피로는 충분한 숙면을 취함에도 계속 쏹립니다. 심리적인 의욕이 저하되는 것도 육체의 피로감이 영향을 줍니다. 이때는 체질에 따라서 경옥고, 공진단, 육미지황탕, 홍삼 등이 체력과 면역을 돕는 보약이 도움이 되며,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조깅과 휴식의 시간이 내 몸에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양방 신경정신과나 한방신경정신과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은 진피차나 치자차를 연하게 차처럼 마시면 마음을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른기침이 오미크론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옥고, 오미자차 등이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차는 폐가 건조해서 생기는 마른기침에는 효과가 없고 가래가 있는 기침에 도움이 됩니다.

인지장애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에는 손끝 발끝을 볼펜으로 자극을 주거나 석창포를 하루에 4g 정도 차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뇌에 강한 자극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미크론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도 잘 관찰하고 극복한다면 이전보다도 더 좋은 몸과 마음의 컨디션으로 회복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

Dr. 설재현 집사

그리움

엄마가 소천하신 지도 어느덧 19년이 지났다. 그런데 여전히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다. 남은 가족들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아이가 태어나 커가는 모습을 보는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엄마가 생각나 마음속 한구석이 아리다. 보고 싶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볼 걸 알지만, 그래도 그리워서 그렇다.

엄마 장례를 치른 직후 교회에서 어느 분이 아버지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건넸다고 한다. 엄마가 천국에 가신 걸 축하한다는, 그분 나름대로 가히 큰 믿음의 인사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얘기를 전혀 듣고 마음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그분에게도 축하할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란다는 답을 전해주고도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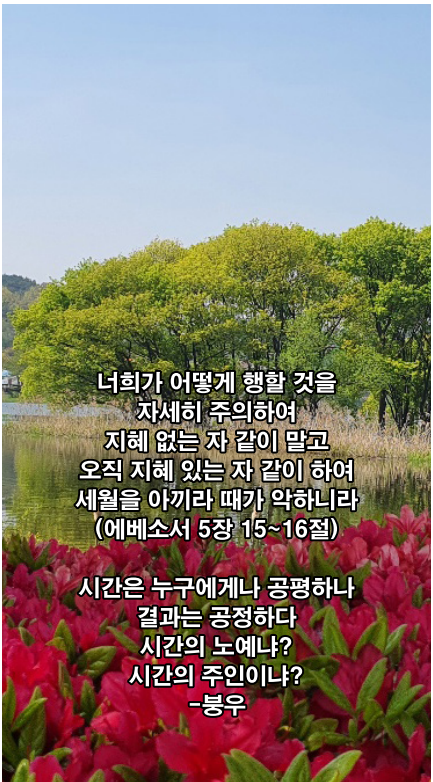
때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본적인 예의라는 선을 넘을 때가 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방도로 하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선을 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선은 항상 지켜져야 옳다. 보여주기 위한 믿음의 과시로는 덕이 되지 않는다. 품위라는 그릇 속에 예절을 담은 믿음의 사람이 진정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멋진 동네가 아니겠는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들었던 위로의 말 중에 “엄마가 천국에서 너희 세 남매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실 거야.”라는 말이 가장 힘이 되었던 것 같다.

슬퍼하는 마음 자체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뒤로 물러가는 행동, 즉 하나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취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슬픔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감정으로 그 마음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잘 추스를 수 있게 스스로도 위로해 주어야 삶에서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 공급하라”(베드로후서 1:5~7).

박찬영 집사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5~16절)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나
결과는 공정하다
시간의 노예냐?
시간의 주인이냐?
-봉우